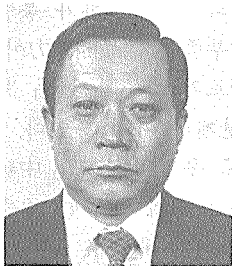


国内 Audio·Video 産業 育成을 위한 提言



崔 根 善
(株)金星社 代表理事 社長

전자산업의 육성은 정부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도 한계가 있으며, 업계 자체의 경쟁력 배양을 위한 노력과 전문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공동개발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정책방향도 이러한 여건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며 연구개발분야 및 중소기업, 소재 업체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1. 머리말

지난 60年代初 Radio 生産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눈부신 成長을 이룩함으로써 産業成長과 技術開發의 中추적 주도역할을 해 온 国内 Audio·Video 産業은 최근 여러가지 内外 与件變化를 감안할 때 새로운 發展을 위한 轉機를 맞이하였다 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世界 電子産業의 構造的 變化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업계는 물론 学界, 政府, 其他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은 괄목할 만한 成長 결과, 電子産業은 물론이고 관련 他産業의 成長 發展에도 지대한 파급효과를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 電子産業은 그동안 쌓아온 技術蓄積의 폭이 두텁지 못하고 国内需要가 한정되어 이를 바탕으로한 國際競争力の 확보에는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장애요인이 内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최근 換率 變動, 保護貿易 強化 등 급속히 변화하는 國際 經營環境 속에서 各国의 企業과 政府가 직면하고 있는 치열한 競争与件 下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도 충분히 힘을 기르는 한편, 学界, 政府, 研究기관이 一体가 되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時点에서 国内 Audio·Video 産業의 育成을 위한 方案을 提示함으로써 발전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産業 現況 및 向后 展望

電子産業은 70年代까지는 技術集約的이기 보다는 勞動集約的 성격이 강했지만, 80年代 들어와서부터 첨단기술의 응용에 힘입어 점점 機能



국내시장의 수요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수출일변도의 Risk를 분산하므로써 내수·수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하겠다.

이 다양해지고 高附加價值 分野로 이행하는 추세가 深化되고 있다.

즉, 가정용기기의 복합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AV System이 主流를 이루게 되었고 나아가 HA와 연결되어 가정의 Total Control System을 構築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또한 尙后 高度 情報化 社會를 이끌어 갈 선도사업으로 광범위한 需要가 기대되며, 급속한 첨단기술혁신에 의해 새로운 商品 需要 創出로 급격한 신장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世界 各國은 自國 電子産業의 保護와 育成 次元에서 이 分野의 保護政策을 계속 유지 강화하는 추세이며, 電子産業 構造가 家庭用에서 産業用으로 이행하는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美國, 日本 등 선진제국의 경우 아직도 輸入規制와 技術保護 政策을 고수 내지는 강화하고 있다.

3. 当面 問題點

전문기술 人力의 부족, 部品·素材産業의 취약으로 價格, 品質面에서의 國際競爭力이 열세에 있어 海外市場의 擴大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해결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技術開發 側面에서는 전반적으로 日本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主要原因은 기술기반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최종 완제품 위주의 단순조립 산업으로 이행해 오에따라 先進技術의 도입, 소화가 불충분했고, 주변 기초기술의 부족과 部品開發力이 취약함으로써 新商品 分野로의 이동과 製品 開發의 迅速성과 獨創性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製品競爭力에 있어서도 우리의 主力인 中級型 以下 보급형 분야에서는 日本과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되나 高級製品 分野와 非價格 競爭力 分野는 아직도 상당수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部品の 해외의존도가 높고, 해외 마케팅력과 현지 생산기반 취약 및 국내시장의 한계와 Software 開發 能力 부족도 국내 Audio·Video 産業이 지니고 있는 취약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그동안 量的 規模 擴大에 치중하여 깊이 있는 技術蓄積 및 開發 對策이 미흡하고, 量的 體制로 인한 수출 상대국의 수입규제 압력확대와 이에 따른 가동을 저하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질을 조기에 強化하는 것이라 하겠다.

4. 育成의 必要性

이미 선진국에서는 家庭用 分野의 發展을 통

해서 여기서 축적된 技術 및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技術集約도와 附加價值가 높은 分野로 이행을 완료한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로서도 국내 Audio·Video產業의 育成, 發展과 함께 관련 部品產業 및 周圍 基礎產業에의 育成을 통하여 經濟的, 技術的 파급효과를 크게 하고 수출지향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電子產業의 高度化와 함께 성장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할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아울러 世界 電子產業 構造의 재편성에 따라 선진국의 家電部門 자체생산 철수 기회를 최대한 活用할 수 있도록 體制를 보완하고, 수출의 존도가 큰 産業임을 감안하여 원貨 切上, 円高 등 환율 변동 영향을 최소화하고 낮은 部品 自給率을 극복함과 동시에 品質, Brand Image 등 非價格 競爭力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감으로써, 기존사업 영역은 물론 첨단 신규상품의 능동적인 수요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5. 育成을 위한 提言

최근 国内 電子業界는 企業의 國際化 (Globalization) 추세에 발맞추어 해외현지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日本の 경우만 보더라도 Hightech라는 기술혁신을 주축으로 힘차게 움직이고 있으며, 円高의 영향을 기회로 삼아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 후발개도국의 거센 도전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与件下에서 치열한 경쟁에 대비하고 우리의 취약한 分野를 보강하기 위한 단계적이고도 꾸준한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하다고 본다.

우선, 中小企業과 大企業間의 긴밀한 연계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웃 日本이나 대만의 경우를 보더라도 中小企業에서 商品開發의 Idea와 部品の 供給을 담당하고, 大企業은 핵심부품의 개발을 담당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世界市場

에서 競争優位를 占하는 토대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도 企業間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기술전체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企業間의 Bottle Neck 현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하겠다.

둘째는 국내시장의 수요를 活性化함과 동시에 수출일변도의 Risk를 分散함으로써 內需·輸出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하겠다.

우선 국내시장의 需要를 活性化하기 위해서는 일부 소비계층의 뿌리 깊은 외제 선호 사상을 해소함은 물론 수입개방 조치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Audio·Video 機器에 대한 관련 Software 産業을 적극 육성하고, 초기단계의 시장기반 조성을 위한 간접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政府의 정책적 배려도 아울러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세째, 해외시장에 있어서도 급속한 量的 成長만을 추구함에 따라 과생되는 산업구조와 기술 정착의 취약 및 尙美의존도의 심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시장 개척을 통한 市場多邊化와 이를 추진하기 위해 현지시장에 맞는 製品開發, Design의 先進化, 國際 特許取得의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가별 安全에 관한 諸 法規가 輸入規制로 이용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업계의 공동대처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自體의 技術力을 배양할 수 있도록 체제를 보완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부품의 조립 生産부터 출발하여 部品 및 素材產業의 育成에는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선 業界 自體의 技術力을 고취하고, 기술공여 및 部品の 공동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협조 체제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政府에서도 部品 및 素材의 국산화 촉진 시책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中小 部品企業의 시설확충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특히, 研究開發分野에 있어서는 전문요원 양성, 개발비 지원 및 주변산업의 취약기술 향상

을 위한 투자에 있어서도 연구기관, 政府, 業界 간의 협조체제도 보완하여 첨단핵심기술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6. 맺음말

우리나라 電子産業은 경험과 歷史에 비추어 볼때 괄목할 만한 成長과 發展을 이룩해 온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급속한 成長, 發展 과정을 거쳐오면서 실제로 많은 중요한 부분이 간과되어 온 것도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電子産業의 育成은 政府의 制度的 장치에 의해서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도 한계가 있으며,

業界自體의 競爭力 배양을 위한 노력과 전문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共同 開發努力과 함께 政府의 정책방향도 이러한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며, 특히 연구개발 분야 및 中小 部品, 素材 業體에 대한 投資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은 결국 電子産業構造를 더욱 高度化하고 製品競爭力을 強化하여 점점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토대를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미래의 情報化 社會에 한발 앞서가기 위한 포석으로 우리 모두의 꾸준한 노력이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